2010 중앙종무기관 결산

불기 2554(2010)년 조계종 중앙종무기관은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라는 대발원을 실현하기 위해 정진해왔다. 불교 안팎으로 소통과 화합함으로써 한국불교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조계종 총무원을 비롯해 중앙종회, 호계원, 교육원, 포교원의 올 한해 현안과 성과를 되짚어봤다.

소통과 화합으로 불교발전 매진

소외층 보듬고 이웃종교와 교류

■ 총무원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승가원 위문 모습.

지난 2009년 11월 취임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월12일 '제33대 조계종 4개년 발전계획'을 발표하며 한국불교 중흥의 백년대계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불교'라는 대발원이 오롯이 담겨있는 4개년 발전계획은 수행종풍 선양, 교육과 포교를 위한 불교중흥, 사회적 소통과 공동선 실현이라는 3대 종무기조를 실현하기 위해 11대 핵심과제와 25대 주요과제가 제시됐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이같은 4개년 발전계획은 선언적 의미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친 내부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종무기조와 방향을 수립해 나가는 등 과제를 하나 둘 실현해 나가고 있다.

스님들이 입적 후 삼보정재가 속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후재산 종단 출연제도를 마련했다. 스님들의 재산을 빼앗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의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종단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알려나갔다.

이를 통해 조계종 스님이라면 누구나 사망 또는 환속 시 종단에 개인 명의의 재산을 출연하는 내용을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해 삼보정재가 헛되이 유출되지 않고 종단 발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특히 법전 종정예하와 원로의원 등 종단의 최고 어른 스님들이 앞장서 사후재산을 종단에 출연하겠다는 유언장을 제출함으로써 후학들에게 큰 귀감이 됐다.

스님들이 노후 걱정없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는 승려노후복지기금 마련을 위한 종단 수익구조 다변화도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7월부터 재향군인회 상조회 향군가족과 함께 상조(장례) 사업을 시작한데 이어 12월에는 하이트진로그룹 석수&퓨리스와 손잡고 '산은 산이오 물은 감(甘)이로다'라는 프리미엄 생수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는 승려노후복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종단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문제 인식과 더불어 종단 일반회계의 70% 정도를 분담금에 의존하는 현재의 종단 수익구조를 타파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사업이다. 이같은 종단 수익사업의 다변화는 상조사업과 생수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다각적으로 논의, 추진될 전망이다.

스님 사후 삼보정재 종단귀속 제도 마련 수입구조 다각화 추진

한국불교의 세계화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13년 세계종교지도자포럼을 개최하겠다고 선포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를 준비하고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지난 9월 미국과 UN을 방문한데 이어 12월에는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면담하고 세계종교지도자포럼에 대한 교황청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지난 11월 한국불교의 수행법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국제선센터가 개원됐으며 해외포교를 책임질 해외교구 신설도 추진되고 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취임 이후 바쁜 일정을 쪼개 매월 1차례 이상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복지시설을 찾아 이들을 보듬고 소통함으로써 사회공동선 실현에도 직접 앞장서고 있다.

이처럼 총무원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속에 난관도 부딪혔다. 서울 봉은사가 직영사찰로 지정되자 명진스님이 크게 반발했지만 총무원은 물리적 대응을 자제한 채 인내하며 화쟁위원회를 통해 대안을 도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템플스테이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전통문화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정부 여당에 대한 불교계의 하나된 경책의 목소리도 이끌어 냈다.

태고종과 50년 넘게 이어진 봉원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데 이어 순천 선암사 문제 해결에도 나서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불교사회연구소 설립도 가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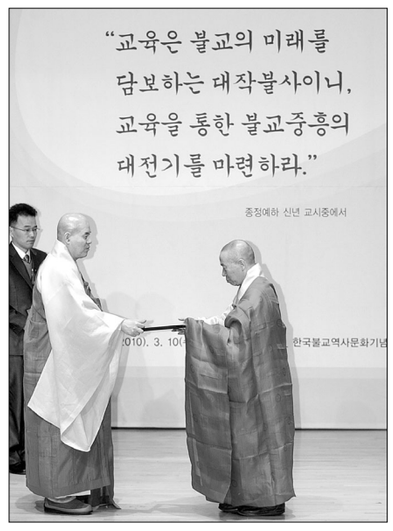
총무원은 2011년도에 종단 재정구조 합리화와 승가복지 등 14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제시한 만큼 종단과 불교발전을 위한 다양한 변화의 움직임이 2011년에도 연이어 펼쳐질 전망이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승가교육 개혁 첫 발 내딛다

■ 교육원

승가교육진흥위 출범 승가대 교과과정 개편 맞춤형 장학제도 도입



승가교육진흥위 출범 모습.

2010년은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스님)이 종단 승가교육 개혁의 첫 발을 내딛은 중요한 해이다.

올 한 해 교육원은 승가교육진흥위원회를 출범시킨 것을 시작으로 기본교육 교과과정은 물론 교육기관 개편 등 승가교육 개혁에 매진했다. 이를 위해 교육법을 개정했고, 13건의 새로운 종법령을 제정했다.

우선 교육분야를 살펴보면 기본교육 교과과정 개편 및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대표적인 변화로 꼽을 수 있다. 교육원은 1년간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교과목을 확정하고 교수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했다. 교육원은 또 교과과정 개편에 따라 교수 DB를 마련한 것과 동시에 박사과정 수료 이상으로 교육연구활동에 매진하는 스님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교수아사리 위촉' 제도를 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

율학, 초기불전, 한문불전, 선학 등 전문대학원 설립 또한 주목할 부분이다. 특히 내년 3월 문을 여는 국제불교학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교육 교과목 개편이나 전문대학원 설립은 그간 유지돼오던 승가교육의 틀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안이다. 일부 승가대학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현재 해인사 송광사 등 9개 승가대학이 교과목 개편에 따라 내년도 학사 운영을 준비하고 있고, 8~9곳의 승가대학원이 3월 문을 연다. 교육원은 승가대학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내년 한해 동안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맞춤형 장학승 선발제도를 도입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스님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던 것에서 벗어나 올해부터는 해외와 국내에서 수학하는 스님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계율이나 불교윤리 등 전공자가 많지 않은 학문분야의 저변확대를 위해 장학금 지급대상 연구분야를 한정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상설연수 교육도 큰 호응을 얻었다. 스님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재교육 시스템 정착을 위해 시작된 지난 8월 도입된 이래 숙박연수교육 25개 강좌와 통학연수교육 6개 강좌 등이 개설됐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계층·지역포교 활성화 '주력'

■ 포교원

조계종 전법단 출범 미디어 포교도 노력 신도증 10만건 발급

조계종 전법단 출범식.

포교원은 올 한해를 숨 가쁘게 달려왔다. 포교를 종단과 불교의 '당연한 사명'임을 인식한 포교원은 지난 1년간 다양한 사업을 통해 포교 지평 넓히기에 최선을 다했다.

포교원은 지난 4월30일 '조계종 전법단'을 공식 출범하면서 계층과 지역을 양 날개로 포교의 영역을 확산시켜 났다. 출범식에서 전법단장 혜총스님(포교원장)은 "정법이 오늘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2500여년 유구한 시간 동안 묵묵히 전법의 길을 떠난 많은 부처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포교 활동이 취약한 각 분야와 각 계층에 대해 적극적인 전법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와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포교원은 병원전법단(5월12일), 경찰전법단(6월28일), 군전법단(7월14일), 성남지역전법단(11월1일), 대학생전법단(12월1일)을 잇따라 발족시켰다. 현장 중심의 전법단 출범은 포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교원은 새해에도 계층별 지역별 전법단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포교원은 지난 9월15일 10만 건 째 '멤버십 신도증'을 발급했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추진한 조계종 신도멤버십 사업 결과 1년여 만에 10만 건 이상 발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포교원은 멤버십 신도증 10만건 발급을 계기로 '100만 신도등록'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오는 2013년까지 100만 신도등록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상황에 맞춘 포교 방법을 시도한 것도 성과이다.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지난 12월13일 '불교입문 파워포인트 강의안'과 '법회의식 동영상'을 공개했다. 또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도 개발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새해에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포교원은 △신도조직화(직할교구 신도회 발족 및 지역별 신도회 조직 사업) △계층포교 활성화 △신도교육 체계화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한 해 동안 '포교 조직화와 사찰 포교 역량 강화'를 기조로 활동을 전개한 포교원은 새로운 포교 영역의 개발을 통해 종합적인 포교망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새해를 맞이할 전망이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민족문화수호와 승풍진작에 관한 담화문

제방 각 처의 소임과 수행정진 그리고 불법홍포에 진력하시는 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에 분주한데도 우리 종단은 깊은 현안과 근심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천년고찰과 전통사찰이라는 일반의 상식과 국가가 규정하는 의미만으로도 불교가 우리민족의 역사를 함께 해온 사실에는 누구도 이의가 없습니다. 선조의 유형 · 무형의 유산을 불가의 것만이 아니라 민족과 국민의 것으로 보전하고, 세계가 인류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선정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편협한 신앙관에 기인하여 이웃종교에 도발적인 행동을 서슴치 않고 보편과 일반의 상식을 벗어나 우월의식을 표출하는 것에 우리 종단은 불가의 포용과 자비의 진정성을 참회로 경책하면서도 큰 염려를 떨쳐내지 못해 왔습니다.

더욱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종교화합의 정책과 지침마련에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던 정부가 종교차별을 방조하고 민족문화를 홀대하는 것은 스스로 소통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기에 상심은 더욱 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최근 수승한 우리 자산이자 선대의 유산을 안타깝게 소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또한 고의의 방화라는 사실은 불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것은 물론 국민의 안타까운 심정마저 침통하게 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왜곡되어진 여론이 없지 않기에 민족문화 보전과 불자의 상심을 치유하고 가람수호에 여념없이 진력하기 위해서는 승풍진작의 원만함에 각별함을 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종단은 작금의 현실을 민족문화의 훼손이라 규정하여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을 단호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의 가치를 스스로 놓아버린 정부와 한나라당과는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소통과 대화의 상대로 삼지 않을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승가 본연의 수행과 불가 본래의 정진으로 민족문화를 수호할 것을 천명하고 현안의 대처를 전국 본사와 말사에 시달하였습니다.

현재에 이르는 중요한 현안 대처의 의지에 따라 종도의 결연한 관심은 물론 불교와 민족문화의 상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무지한 이들의 몰이해의 표출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선이 중앙과 전국의 사찰, 그리고 스님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당면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승가의 위의가 크고 작음으로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소한 언행과 몸가짐도 그 어느 때보다 승풍으로 결부되고 종단의 위상을 실추하는 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달한 종단의 종무지침을 반드시 일선에서 실현하고 잠깐의 허술함조차 없어야 할 것이며, 불교를 폄훼하는 어떠한 행위라도 결연하고 단호하게 실천하는 것에는 승가의 위의와 승풍의 진작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불자를 비롯한 국민의 신뢰에 흐트러짐 없이 본연의 수행과 포교에 정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수행자이자 사회의 지도자로서 따르는 자타의 위의를 철저하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수행자는 호법의 책무가 본연으로 내재되어 있음을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종단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최선의 진력을 당부드립니다.

불기2554년 12월 2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호법부장 상 운